

작가 옥정호를 내가 살고 있는 현실로 끌어내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속해 있을 법한 세상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자신의 '예술 작품' 속에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행적인(performative) 행위로 규정되는 그의 존재는 기괴하고 뒤틀려진 사회를 향해 냉소를 날리는 언어이고, 상징이며, 장치였다. 물론, 여전히 그의 존재는 수행적인 행위와 더불어 작업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이제 육체적 책무가 되어 옥정호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며 옥정호는 비로소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그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현실은 마침내 나의 현실과 조우했다.

1. 최근 <거룩한 풍경>(2012) 연작에서 직접 요가 자세를 선보였는데, 요가를 수련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매번 작업에 작가가 등장해왔기 때문에 크게 낯설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작업들과는 다소 거리가 느껴집니다.

: 요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안양 무지개>(2007) 연작을 할 때만 해도 요가와 같은 웰빙형 레포트가 열풍을 일으키는 것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가를 그런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보다가 지금은 어떤 스포츠나 웰빙 담론 이런 것보다는 몸의 움직임, 좀 더 물리적인 몸뚱이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동작이 우아하잖아요.(웃음) 그런 우아한 자세를 뺄에서 엄청 열심히 해본 거죠. 요가와 유사한 형태의 자세를 실제 작업에 도입했던 것은 2007년에 <충무로 프로젝트>를 할 때가 처음이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업인데, 충무로영상센터(現, 오! 재미동?)의 마지막 프로젝트로 충무로를 기록한 작업이었어요. '무지개 옷'도 그때 처음 입었어요. 지금 보면 말 그대로 웃겨요. 그때까지만 해도 웃기려고 작정하고 작업을 했으니깐요.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늘 작업에 제가 등장했는데, 단순히 '내가 교회 탑을 쓴다면.....' 이렇게 생각하며 작업을 구상했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써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학교 과제를 할 때도 그런 과정과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생각 없이 직접 모델이 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2. 그럼, 교회의 침탑이나 국회의사당의 돔 부분을 머리에 쓰고 촬영했던 <기념촬영>(2001-2002) 연작과 같은 작업들이 첫 번째 개인전에 등장했던 작업들이가요?

: 아뇨, 지방자치단체의 마스코트와 고장가(歌), 데이비드 카퍼필드(David Copperfield, 미국인 마술사)의 세종로 마술쇼 같은 것들을 보여줬었죠. 첫 개인전은 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

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급하게 전시를 준비하다 보니 부족했던 부분도 많고요. 신도시 전원주택 앞에서 팻말을 들고 촬영한 <하하하>(2003)라는 작업도 그 당시에 했던 것인데, 2003-2004년 유럽 플라잉시티(flyingCity)의 일원으로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개인전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도 몰랐었고요.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상'과 '자유의 여신상'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마술쇼에 등장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기념물이나 지자체 마스코트와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전의 교회 탐이나 웨딩홀은 다른 작가들이 지나쳤던 것들을 차별화된 시각으로 언급했던 반면, 기념물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리 신선하지 않았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지금 보면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웃음)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조금 더 정교한 입장이 전제되었어야 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3. 선생님 작업이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처음에는 그저 실소(失笑)만을 유발할 뿐이던 작업이 계속 신경에 거슬렸기 때문이었어요. 주변의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볍고 유쾌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지적하는 풍자의 방식이 유효하게 적용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직설적인 유머가 사라진 최근 작업을 보면서 잠시 당황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제 작업이 그렇게 보였으면 했거든요. 그 당시 작업할 때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심각한 이야기는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심각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100분 토론'만으로도 충분하죠. 심각한 이야기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심각함을 더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작업을 대하는 태도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업을 할 때 바로 전에 했던 작업을 다시 참조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점차 변화를 주면서 진행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기질을 늘 생각하고 그걸 잃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했죠. 아시다시피 제 성격이 원래 발랄해요.(웃음) 그래서 작업이 발랄하게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였는지 발랄하게 작업하는 게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더군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작가는 현재 자신의 몸뚱이에 예민해야 하고 그것에 충실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그 너머를 바라보고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면서, 지금껏 작업에서 고수해왔던 풍자를 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르게 되었죠. 사실 풍자를 넘어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었나 봐요.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웃음)

4. 풍자를 넘어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작업을 풀어내던 일상적인 언어가 현실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기엔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실에 대한 비판이 풍자적 태도로 인해 그저 단순한 비아냥이나 공허한 배설에 머물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 현실에 대한 직설적 풍자는 '나는 꿈수다'나 '개그콘서트', 인터넷의 이런저런 사이트들에서 볼 수 있는 패러디물들이 더 잘하잖아요.(웃음) 풍자는 결국 풍자하는 대상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고,

무게중심이 나보다는 그 대상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식의 풍자는 결국 단발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전에 이미 휘발해버리는..... 언젠가 한 선배 작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비웃던 현상들, 조롱하던 대상들도 그 순간만큼은 거룩하다고..... 그렇다고 이전 작업들의 대상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측은하게 바라보게 된 건 아니고요. 이전 작업에서 다뤘던 대상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롱하는 태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새삼 측은한 시선이 생겨나고, 풍자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생기게 된 건 그 풍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태에서 판타지를 발견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실제 삶의 풍경에는 판타지가 없잖아요. 그냥 한층 더 짝딱하기만 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전 작업에서는 그 짝딱함을 가리기 위한 장치들로 존재하는 이상한 판타지를 비웃고 조롱했던 거죠.

5. 작업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그 '이상한 판타지'에 대해 좀 더 얘기해주세요.

: 당시 작업에 드러났던 판타지는 일종의 서구식 이미지가 보여주는 판타지였죠. 예를 들어, 미국 중산층들이 살고 있을 듯한 집에서는 서양식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와 딸이 살고 도시형 한옥에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다는 설정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보았던 것이죠. 고정관념 같은 것이 주입해놓은 것들, 스스로 생산해낸 이미지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제공되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 것들 말이에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궁전을 본뜬 예식장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선 도심의 모습도 일종의 판타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조롱할 만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풍자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 비웃고 조롱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사회 구조로 관심이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구조 안에서 다시 그것을 인식하는, 그러나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 자신으로 시선이 이동하게 된 거죠.

6. 그래서 스스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갔군요. 수행(修行, self-discipline)을 위해서! 요가라는 것이 실제로 해보니 많이 고통스럽더라고요.(웃음) 전시장을 다시 찾아가서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표정들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더군요. 그 표정 하나하나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 작업들에서는 그런 심각한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잖아요. 요가 수련으로 일그러진 표정이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더군요.

: 네. 리뷰 중에 “요가를 원래의 맥락인 종교적, 영적 수행의 방식 속으로 되돌려 놓은.....”이라고 쓰신 부분이 정확하게 다가왔어요. 수행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고통을 수반해요. 무언가 더 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뺄(개흙) 밭에서 요가를 하는 그런 뺄(허튼) 짓(?)이 쓸모없는 과장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진지한 수행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아한 자세와는 달리 표정이 결코 우아하진 않았으니까요.

7. <거룩한 풍경> 연작은 요가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 풍경을 담은 사진으로 구분되는데, 풍경 사진은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시도였던 만큼 기대했던 점도 많았고, 또 아쉬웠던 점도 많았을 텐데요.

: 처음에는 서로 다른 풍경이 함께 나란히 놓였을 때 의도치 않았던 어떤 내러티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했었죠. 그런데 그런 내러티브를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관람객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쉬워요. '풍경 사진'처럼 보이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아쉽고요. 사실 '풍경 사진'이 아닌 '풍경'을 찍고 싶었거든요. 풍경 사진을 빙자해서 그 풍경 안에 존재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부각하여 보려고 했는데,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풍경을 찍었으나 풍경 사진이 아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인간 삶의 팍팍함, 관계의 팍팍함이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힐 수 있도록 물리적인 시선의 이동도 이끌어내야 하고, 사진적인 완성도도 어느 정도는 획득해야 하고..... 담아내고자 했던 것들이 많아서 어쩌면 제가 가장 원했던 지점이 모호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8. 결국 풍경은 하나의 맥락을 만들어주는 장치였고, 그러한 풍경을 배경 삼아 '삶'과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내러티브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군요. 이전 작업들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발견되는 공허한 판타지들을 풍자함으로써 비판적이고 나아가 정치적인 내러티브를 발생시켰듯이 말이죠.

: 처음 정치적인 미술의 맥락에 제 작업이 포함되었을 때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정치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냥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보았던 것들로 작업하면서 사람들의 판타지에 관해 이야기한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포스트 민중미술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그 담론들이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저 역시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현실 속에서의 어떤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제 태도가 정치적으로 읽혔다면, 아마도 제 작업 어딘가에 그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주요 이슈로 삼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 얽매어 현재를 놓쳐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에 대해, 나를 둘러싼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재미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작업을 하는 최초의 이유인 것 같아요.

9. 지금, 여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기반을 둔 작업은 결국 관계를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복잡하게 뒤엉킨 현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많은 것들이 선생님을 불편하게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작업에 등장하겠지요?

: 네, 그렇겠죠. 요즘은 빈둥거리면서 놀 시간이 없다는 것,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넉넉지 않다는 것까지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그런 현실을 한 개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계속 이야기하게끔 저를 자극하는 불편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인데, 작업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런데 어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니, 지켜나가야 될 그 무엇? 뭐 그런 것 말이죠. 나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보자! 좋은 작업하고 싶고, 행복하고도 싶고, 나중에 병원 갈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욕망들이 뒤섞여서 알아볼 수 없을 때 그러한 욕망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건전한 욕망이랑 이 건전함을 해치는 욕망이 구분될 것 같아요. 그 과정 역시 저를 자극하는 불편함이 되겠죠? 건전한 욕망과 건전함을 해치는 것의 구분은 윤리적인 판단에 기준하는 것일 텐데, 이제부터는 그 기준을 정해야겠지요.(웃음)